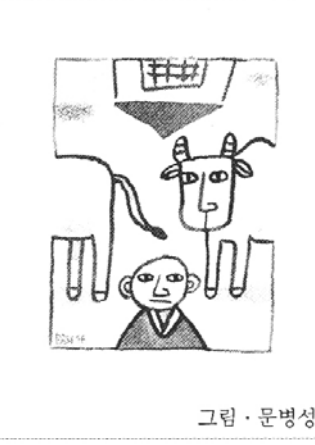


### 한형조 무문관 탐방

65  
오조의 소꼬리

\* 오조가 말했다. "가령 소가 창문을 지나간다 하자. 머리와 뿔, 그리고 네 다리는 지나갔는데, 여섯째 꼬리는 지나가지 못할까."  
\* 나 해개가 말한다. "만일 여기서 한 쪽을 거꾸로 붙이고, 전환의 한 마디를 내릴 수 있다면, 위로는 네 가지 은혜에 보답하고, 아래로는 세 가지 존재에 보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다시 꼬리를 열십히 살펴볼 일이다."  
\* 송하여 가르치되, "지나가면 구렁에 빠지고, 돌아가면 부서질 터. 이 꼬리란 놈, 심히 기교하구나."  
牛過窓:  
五祖曰, 譬如水 牛過窓, 頭角四蹄都過了, 因甚尾巴過不得, 無門曰, 一隻眼, 下一轉語, 可以上報四恩, 下濟三有. 其或未然, 更須顧顧尾巴始得. 頌曰, 過去猶猶, 回來却被, 者些尾巴子, 直是甚奇怪.



이런 화두의 주인공도 오조(五祖法然?~1104)이다. 친녀유혼(본지 제 185호)과 외나무다리(본지 제 187호)에서 만난 적이 있다.  
번역은 우선 직역에 가깝게 해 놓았다.  
1)소(水牛): 글자 그대로는 물소를 가리키는 듯 하지만 석연치 않다. 물소는 중국의 북방이나 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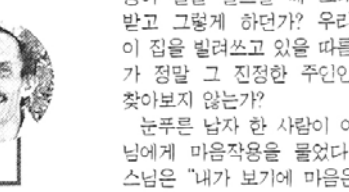
시각은 상식과 일상의 닫힌 세계를 흔들고 뒤집는다. 그래서 '거꾸로' 붙여야 한다.  
4)네가지 은혜(四恩): 삼보(三寶)와 국가, 부모와 중생의 은혜를 가리킨다. 육신의 생명을 거두고 키우며, 또한 진리의 삶을 일깨워주고 이끌어 주는 데 있어 지극한 은혜를 가리킨다. 첫머리의 삼보는 불교가 중구와하면서 그들의 자연주의의 영향으로 천지(天地)로 바뀌기도 했다. 한 존재의 삶은 저 스스로의 힘이나 아니라 이들 인연들의 자비와 도움으로 지탱되고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은혜가 이만저만이겠는가.  
5)세가지 존재(三有): 불교는 이 세계를 '참고 견뎌야 할' 곳이라는 뜻에서 사바세계(娑婆世界)라고 한다. 사바는 단일한 체계가 아니라 수준에 따라 세 가지 층위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삼계(三界)라고 한다. 욕계(欲界)와 색계(色界), 무색계(無色界)로 갈수록 견디기가 수월하지만 아직 삶의 흔적과 불건전한 정념들이 다 떨어져 버리지 못하고 고통 속에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깨달은 사람은 그 자체만으로 또 그들의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위안과 평화, 그리고 지침을 준다. 자(資)란 '도움이 된다'는 뜻이다.  
화두의 상황은 이렇다. "소가 열기살기 엮은 울

## 그대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몸의 감각기관으로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승결과 마음에 쏟는 집중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그러나 집중력을 더욱 높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벽, 마루, 승결 등을 생각하고 보는 것으로 족하다. 몸의 기본적인 감각기관의 작용과 함께 하라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고급의 위대한 철학자 과학자들이 주목했던 모순 현상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의 승결은 흥부와 복부에서

정념 ④  
공기가 팽창하면서 일어나지만 이것은 때때로 동일한 입력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 유정물의 본성은 육체의 작용에서 파악된다는 가담이 여기에 있다. 이것은 나마(nama), 루파(rupa)라고 한다. 루파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어떤 변화를 지켜볼 때 지각하는 육체적 요소이다. 이때 마음을 현미경과 같이 사용해야 한다.  
다시말해 우리가 그러한 변화를 가까이에서 보는 순간 그 경험은 고정되며 우리는 과학자가 현미경을 사용하듯이 마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물영어를 흔히 들여다 볼 수 있다면 그 속에 살고 있는 물고

마음을 현미경처럼 사용  
감각기관의 작용을 보라  
사물의 참주인을 알 수 있다  
합쳐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나'라고만 생각한다. '보는 것은 나다' '보는 것은 나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잘못된 견해이다. 보는 행위에서 '나'를 제거해야 한다. 바라보는 것에 마음을 고정해야 한다. 움직임 변화 등의 모든 행위들은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마음이 구



의 몸이라고 생각하는가? 이 세상은 이 세상의 것이고 몸은 몸의 것이다. 만약 우리가 몸을 보고 느끼 말라고 하면 몸이 그 말을 듣는가? 그대의 장이 발을 일으킬 때 그대 허락을 받고 그렇게 하던가? 우리는 단지, 이 짐을 빌려쓰고 있을 따름이다. 누가 정말 그 진정한 주인인지를 왜 찾아보지 않는가?  
눈뜬 남자 한 사람이 아잔차 스님에게 마음작용을 물었다. 아잔차 스님은 "내가 보기에 마음은 우주의 중심이며 마치 하나의 점과 같고 마음의 상태는 잠시 혹은 장시간 여기에 머물러고 찾아오는 손님과 같다. 이 손님을 잘 알아두라. 자기네들을 따라오게 하려고 그들이 그려보이는 생생한 그림들과 그들이 늘어놓는 그럴싸한 괴담의 연사들을 환히 알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그대가 차지한 자리를 내어주지는 말라. 그대가 발붙일 곳은 거기 뿐이니, 그대가 부단히 한눈 팔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며 찾아오는 방문객들을 맞아주고 알아차리고 수행을 확고히 하여 그대의 마음을 알아보는 마음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그 방문객들은 결국 발걸음을 놓고 말 것이다"고 말했다.  
집심으로 마음을 열고 방문객들 쪽으로 눈길을 나누어 보라는 것이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마음작용 하나하나를 잘 알게 되고 마음의 평온도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번역=오중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 진리 보려면 또다른 눈 필요

일상에 묻혀 새나가는 '영원의 가치'를 찾아라

은 물론 남방에서도 구경하기 힘든 종류이기 때문이다. 화두와 배경이나 소품은 일상적인 것을 쓴다. 그래야 현실과 역설의 대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종류는 거세된 수소나 암소를 가리키는 듯하다.  
2)창령(窓牒): 그런데 그 소가 창문을 지나가는 것도 남쪽하기 어렵다. 소가 뒷머리 사람이나 안방으로 들어올 것인가. 게다가 나갈 때는 어찌서 또 창문인가. 창문으로는 머리카락, 그리고 사지가 빠져나가지 못한다. 그렇다면 창령(窓牒)은 무턱대고 '창문'으로 번역해서는 안된다. 창(窓)은 창(窓)과 마찬가지로 '격자무늬'를 가리킨다. 이를 참작하면 창령이란 나무판자나 통나무로 엮여놓은 소 울타리, 좀 더 한정하자면 그 울타리에 소가 드나들 수 있게 한 출입구를 가리킨다.  
3)눈 한쪽을 거꾸로 붙이다: 눈은 본시 두 짝이다. 왼쪽과 대상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한 조화(造化)의 배려이다. 그런데 선가에서는 이 한 쌍의 기관(器官)이 대립과 상대성의 한정된 세계를 고착시키는 불완전한 도구라고 생각한다. 진리를 보기 위해서는 또 다른 눈이 필요하다. 그것을 '한쪽의 눈', 즉 일척안(一隻眼)이라고 했다. 영원의 전방, 절대자의 시각이라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이

## 불교와 수학

69  
절대대 상대

김용운  
지난 이란전쟁 당시 미국의 전차대가 사막을 질주하며 이란군을 섬멸했었을 때의 광경을 TV에서 본 바 있다.  
당시 미국 전차부대 장병의 안주 머기에는 (구약성서) 시편의 한 구절 '신은 사람과 뱀을 짓밟고 잔군한가'라고 적힌 인쇄물이 들어 있었다 미국과 이라크는 공통적으로 사막의 풍토에서 태어난 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가차없이 싸운 것이다. 유태교의 신 여호와와 절대자이다. 그는 모세에게 이집트인이나 가나안의 전 주민을 가차없이 죽이라고 꾸짖었으며 그의 군대는 그 본부대로 집행했다.  
신은 절대적이기에 모세는 서슴없이 신의 명에 따른다. 한편 이라크의 후세인 대통령은 <코란>의 정신을 받들어 '성전(지하도)'을 부르짖고 있었다. 이때의 전쟁은 절대자(신)를 등에 업은 종교전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슬람교, 기독교는 절대자(신)를 받드는 종교이며 (구약성서)를 공유한다. 한결같이 절대자를 구상하면

##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서 그 해석의 차이가 문명 내용을 다르게 했으며 서로가 치열한 적대 감정을 갖게하고 있다. 예전에는 같은 기독교인 사이에서 치열한 전쟁을 벌였었다.  
한편 불교의 기본은 '공(空)'이다. 여기서 '기본'이라는 것은 절대자가 아닌가? 라는 반문이 나올 수도 있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절대자를 신봉한다는 뜻에서 이들 사이에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이 된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가 아니면 상대라는 이분적인 논리의 한계를 벗어나  
한데, 무한소를 태어나게 한다. 같은 이유로 대우주도 공에 포함되어 그 속에서 나왔다. 그렇기에 절대일 수 없다. 절대가 아니면 상대라는 것은 속단이다. 상대란 +와 -, 공정에 대한 부정의 구조인데 공은 +, -를 동시에 내포하는 상대의 총합이라고나 해야 할 것이다. 상대적인 것 모두를 내포하는 것이다.  
불교적으로 말하는 '절대불이(絶對不二)'는 +도 -도 함께 포함하고 남게 하는 상대의 총합이며 절대가 +, 또는 -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회랑의 피타고라스는 '모든 것의 근원은 수'라 하며 수를 절대화함으로써 좌절했다. 피타고라스가 절대화한 수는 유리수(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 전체이다. 그는 전체의 운행, 계절의 주기, ..... 등 모두가 수로 표시될 수 있다는 사실에서 수를 절대화한 것이다.  
피타고라스의 수는 불교 철학이 -를 수의 근원으로 삼으면서도 절대화하지 않았던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고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는 공종의 절대자(신)가 있다. 이 신에 대한 해석은 달라도 절대화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다. 절대 대인 실제로 있고 없고를 막론하고

## 건·강·보·조·식·품·허·가

### 몸을 다스리는 (治身)

자·연·건·강·식·품

몸이 없으면 사람 아닌 귀신(神)이고 몸이 있으면 사람이다. 사람의 몸은 부모로부터 받아 태어났으므로 사람의 근본이 부모가 된다. 그러므로 효(孝)가 백행(百行)의 근본, 천하의 대본(大本)이 되며 효, 그 다음이 충성, 의리, 신의가 된다. 몸이 음식을 먹고 소화와 배설을 잘하는 것이 바로 몸을 잘 다스리는 것(治身)이다. 몸을 잘 다스리면 기쁘고 없고 병도 없으니 신진대사가 원활하여 몸이 건강해진다. 몸을 다스리는 처신(治身)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治世)과 똑같다. 몸이 있어야 수신(修身:몸을 닦는 것)을 할 수 있고 수신을 잘하여 도(道)를 깨달은 분이 성인(聖人)이니 성인이자 제가(齊家:집을 다스림)·치국(治國):나라를 다스림)·평천하(平天下:세상을 평화롭게 함)를 할 수 있다.  
성인이 되어야 오복(五福)【첫째 수(壽:건강과 장수)·둘째 부(富:부와 귀)·셋째 강녕(康寧:편안함)·넷째 유오덕(攸好德:덕을 좋아함)·다섯째 고종명(考終命:죽음을 잘 죽음)】을 다 이룬다. 사람은 잘 살고 죽어야 하기 때문에 오복의 첫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수(壽)가 되고 마지막이 편안하게 잘 죽는 고종명(考終命)이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몸을 잘 치신(治身)하여 몸을 잘 닦아 도(道)를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세상 사람이 모두 좋아하는 권력, 재산, 명예, 무병장수를 얻으려면 질이 좋은 자연건강종합식품을 먹고 몸을 잘 다스려 몸을 잘 닦아서 도를 깨달아야 한다.

「불로화정(不老化精)·솔호소정액(松醇素精液)·솔선식(松仙食)」중 「치신(治身) 자연건강종합식품」은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방장산)인 지리산에 있는 본사 식품 제조공장에서 만든 것이다.

### 불로화정(不老化精)

신중 사찰의 스님을 위한 건강식품인 「불로화정」은 시연 스님이 40여년간은 사 큰 스님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으로 흑염자(검은 까)와 감식초와 10여종의 첨가물【전부 우리 농산물】을 3년간 발효시켜 만든 것이다.

「불로화정」은 노소(老少), 체질에 상관없이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여 체질을 개선함으로써 건강이 후천적으로 노화가 억제되며 위염·소화불량·설사 등 위장질환이 치료되며 2개월만 복용해도 다이어트 없이 배불리 먹어도 비만이 안되고 복부의 주름살이 퍼지며 다량의 음주에도 취하지 않고 눈이 밝아지고 피로를 모르는 건강을 만들어 준다.

가 격 : 불로화정  
정가 50만원(2개월분)을 마지막분 선착순 1,700명에게 40만원(2개월분)에 할인하여 드립니다.

### 솔호소정액(松醇素精液)·솔선식(松仙食)

정성불시하면서 산에 사는 사람인 신선(山仙)의 주생(主生)은 시계절에 푸른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놀라운 효능은 여지 말로 다 할 수 있겠다.  
나무는 자기 몸을 불태워 없애고서 불을 생(生)하기(五行相生의 수생화중의 나무의 소나무는 동방(東方:五行의 木)의 나무)의 나라인 한국을 대표하고 상징한다.

시찰 및 민간의 비전(秘傳)된 많은 처방을 얻은 여러채신(채신) 자연건강종합식품회사를 경영하는 시연스님과 지리산에서 30여년간 소나무를 연구한 토종사 소나무임장주(임장주)가 힘을 합쳐 만든 소나무자연건강정(정액)종합식품이 「솔호소정액」과 「솔선식」이다.

「솔호소정액」은 솔잎·솔순·솔배방·솔마디·솔화기루·솔진·솔근뿌리·솔목피·솔이버섯·백령령·적령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영어리의 조선소나무의 열두 가지 원료에 당귀·감초·표고버섯·홍삼·홍삼·홍삼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 숙성시켜 수천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지염치유와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낮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강정종합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가지 않아 「솔호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 가지 원료에 여러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든 것이다.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 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山仙)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선식(山食)으로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으며 3개월 정도만 먹어도 비만체중 20kg 이상이 빠지는 다이어트 식품이고 성인병과 난치병의 예방 및 치료와 특히 당뇨병에 효력이 있으며 몸질 날이갈듯 가벼워지고 후유증도 없는 기적의 솔음식이다.

「통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골관개통의 질환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호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회에서 품질검사에서 적합관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 번호「솔호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 했으며 건강보조식품 허가 [98.3.31]를 받았으며 앞으로 우리 소나무 자연 건강 종합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의학혁명을 할 작정이다.

솔호소정액(松醇素精液) : 원액 2,800ml(700ml 4병, 2개월분) : 정가 ₩700,000원 <회원특목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호

솔선식(松仙食) : 환약 1개월분 : 정가 ₩700,000원 <회원특목시 할인가격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호